

## 주제적 관심을 통해 본 규방가사의 세계

김석희\*\*

<차례>

1. 서언
2. 시집살이, 어떻게 넘을 것인가?
3. 귀의처, 그 결국은 어디인가?
4. 숲 돌리기, 어디서 오는가?
5. 결어

### 1. 서언

규방가사는 주로 조선 후기 사회 양반가 부녀들의 삶과 의식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는 문학이다. 오늘날의 현대시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본격적인 시라고 보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낡은 유습의 창고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어문생활사란 관점에서는 매우 소중한 유산일 뿐만 아니라, 문명사의 단계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생한 여성생활사적 기록물이기도 하다.<sup>1)</sup>

\* 인하대학교.

\* 이 글은 한국가사문학관 개관 8주년 기념 (제9회 전국가사문학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조금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일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김준옥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학술제의 주제가 “가사의 유형별 전통과 계승방향”이

필자는 규방가사에 대해서는 공부가 깊지 못하다. 다만 필자의 주된 관심 영역인 조선후기 향촌사족층의 문학을 공부해 오면서 그들의 문학과 규방가사가 表裏의 관계로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관심영역을 좀 더 넓혀 보고 싶은 뜻에서 이번 과제를 수락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규방가사 작품들을 가급적 폭넓게 섭렵해 보았다. 그러나 <복선화>나 <노처녀>, 화전가류를 단선적으로 읽었을 때와는 판이하게, 전체상이 또렷하게 정리되지를 앓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규방가사 자체의 자료적 속성에서 말미암는 것 같았다.

규방가사는 轉寫에 전사를 거듭하여 유사한 이형태들이 많고, 제작자나 제작 연대 또한 알려진 경우가 드물어, 그 통시적인 전개양상은 아직도 잘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개화기 이후 붓물 터지듯이 산출된 작품들이 대량으로 혼효되어 있어, 어디까지를 조선시대의 작품으로 볼 것인가도 명료하게 가늠하기가 어렵다. 작품 또한 완결된 것 못지않게 중도에 그친 것들이 많고, 내용의 중복, 조합, 가감이 많아서, 작품과 작품 사이의 경계조차 모호한 것들도 많았다. 표기나 필사 상태 또한 좋지 않아 난해하고

있는데, 규방가사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그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통계승을 위한 논의와 실천방안이 이미 다각도로 모색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여 주제의 방향을 조금 달리 잡았다. 규방가사 창작 동인으로서의 ‘과제 상황’과 ‘주제적 관심’에 초점을 두고, 그 형상성이 탁월한 사례나 맥락의 특이성이 두드러진 경우를 주로 살폈다. 계승방안에 관하여는 따로 논할 것이 별로 없어 결어를 통하여 한두 가지 제안을 덧붙였다. 장르 자체의 반복적 재현보다는 문화적 콘텐츠로서의 자원적 가치를 어떻게 발굴하고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의 주지다.

1) ‘어문생활사’의 관점에서 여성문학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은 이경하가 특히 강조한 바 있다.(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 박사논문, 2004.) 그는 여성문학사 서술의 전략적 입각점으로 어문생활사적 관점의 도입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제안으로 보인다. 근대 이전 여성들의 작품이란 嚴刻書와도 같아서 그 생활사의 맥락, 특히 어문생활사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通時的 意味를 짚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모호한 것들이 많다.

그리하여 필자는 우선 혼란된 머릿속을 정리해 두려는 의도에서 규방가사의 창작-유통-수용을 매개하는 주제적 관심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근대적인 대중교육이 시행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까지의 여성 일반의 삶은 조선시대의 연장에 가깝기 때문에 규방가사의 주제적 관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들어 지어진 가사 가운데는 시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여 발언하는 <생조감구가>나 <여명가> 등이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규방가사는 여성들의 일상생활 공간이었던 시집과 친정과 그 주변에서 생기는 일상사와 일상적 관심이 작품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사족 여성의 이런 삶과 관심과 의식은 유교적인 가부장제라는 제도의 틀 속에서 규정된 것이기도 했다. 동시에 大夫로의 진출이 거의 봉쇄되어 가는 향촌사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또 다른 명어로 加重된 것이기도 했다. 아울러 사회적 주체로 서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早婚의 풍습과, 어린 여성이 혼인과 더불어 곧바로 시가에 귀속되어 살아야하는 親迎制 또한 여성들의 삶과 의식을 속박하였다. 규방가사란 근본적으로 이러한 삶의 조건들로부터 분비되어 나온 것이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양상을 작품의 실상을 검토해 가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 2. 시집살이, 어떻게 넘을 것인가?

앞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었던 이러한 조건들로 말미암아, 규방가사의 일차적인 관심 영역은 자연스럽게 시집살이 문제였다. 이것은 망망한 바다를 건너는 일이기도 했고, 험한 고개를 넘고

넘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했다. 시집살이를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어린 딸을 시집으로 보내야 하는 친정 부모의 중심 화두가 되었다. 산적한 계녀가사의 존재가 바로 그러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계녀가사의 범주를 넘어서는 영역에서도 이러한 관심은 ‘시집’이란 말과 함께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기도 했다. 다음이 바로 그러한 사례의 전형적인 경우다.

A. 감짜기 눈물 닦고/이러 안자 하는 말이/제숙주 제가형아/면면이 각각 불러/연연한 가는 소리/은근히 겨우 내어/날 차즈오 날 차즈오/부대 수이 날 차즈오/외가 처가 다니거든/우리게로 지낼적에/잊지말고 날 차즈오

B. 저 소년들 거동 보소/잘 가거라 그 말 끝에/우리 비록 무심하나/목적간장 아니어든/찾기야 찾지마는/부탁하오 부탁하오/시댁사리 부탁하오/말도 만코 흥도 만흔/시댁사리 부탁하오/(...25구 중략...)/백행에 조심하야/구고가장 즐겨하고/향린사람 칭찬하야/아모 집 아모 대이/현철하고 유순하야/친가전문 넉넉다는/이 소문이 차차 나서/우리 귀에 들리기/평생에 지원일세.

C. 뚝고 나니 교자 든다/어화 우리 동무들아/이 이별 어찌할꼬2)

인용문은 <석별가>의 마지막 대목인데, 이 가사는 제목 그대로 시집가는 여인의 마음과 행태를 여실히 그려내어 묘사의 사실성이 돋보이는 규방가사의 秀作이다. 처음에 여자가 成人된다는 것의 의미를 탄식조로 읊고, 이어 신행 전 혼수 준비에 고달픈 정황을 길게 묘사한 뒤에, 신행 당일 이별 장면을 問答을 곁들여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부모, 여동생, 노복, 동무들과의 이별이 차례로 나오고, 맨 나중에 위에 인용한 대목이 배치되어 있다. 어머니와의 이별에서 동무들과의 고별 문답이 이어지는 동안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고 만다. 그러다가 아직도 차를 기다리고 있는 친척 남성들을

2) 김성배 외 편저, 『주해 가사문학전집』(집문당, 1961. 1981중판), 371-372쪽.

보는 순간 신부는 눈물을 흘리고 이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한다. 그래도 행동반경이 허여된 남성들이 幽閉 속에 처하게 될 자기를 찾아야만 된다는 호소 겸 설득이다.

서두에 附記한 “깜짜기 눈물 닦고/이러 안자 하는 말이”라는 묘사 속에는, 호소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한 인식과 함께 설득의 의지가 아울러 함축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B의 마지막을 이어 급전직하 매듭을 짓는 結辭 C의 “두고 나니 교자 든다/어화 우리 동무들아/이 이별 어찌할꼬” 하는 대목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은 〈석별가〉라는 제목 그대로 전체적인 主潮는 한탄의 서정이다. 그리고 이 서정은 여성들의 集團無意識으로 통할 만큼 깊고도 무겁다. ‘울음의 바다’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여성들의 근원적인 슬픔이 충일하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 펼쳐지는 이 대목에서만 또렷한 意識의 談論, 그 팽팽한 ‘설득의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깜짜기 눈물 닦고/이러 안자 하는 말이” 속에 항변의 결의가 감지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 같다. 여성들의 정황이며 내면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해 온 가부장제적 사회 慣行의 厚顏無恥性에 대한 反擊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소년들은 제대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저 소극적으로 찾겠단 말을 半對答으로 해 두고, 장황한 戒女訓을 나열한 후에 시집살이 좋은 소문이 들리기만을 고대한다는 무거운 당부를 하고 있다. 25구에 이르는 戒女訓이 B의 중략한 대목인데, 事舅姑를 위시한 계녀가사의 핵심이 절절히 강조되어 있다.

사태나 행동에 관한 서술, 정황이나 심리에 대한 묘사가 주조를 이루고 있는 이 작품에서 B와 같은 대목이 길게 삽입되어 있는 것은 여러 모로 어색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굳이 이러한 대목이 첨부되어 있는 것은 실행 대목의 실재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시집살이의 무거움에 대한 인식이 송별장면 ‘울음의 서정’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정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도 하다. 허두에서 “실행갈 동무들아/석별가 드러보소”로 출발하여 결국은 시집살이의 무거움에 대한 확인으로 기울고 있는 이 작품은, 시집살이 넘기가 그만큼 무거운 중압으로 신부에게 얹혀져 있었음을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집살이의 중압감을 두고 친정집 남정네들과의 문답이 본격적인 담론의 형태로 확대된 사례도 발견되는데, 〈송회가〉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다.<sup>3)</sup>

이 가사는 416구에 이르는 다소 긴 작품으로, 女身歎이라 할 수 있는 종매의 말이 제1단(118구), 제3단(22구)을 이루고 있고, 종남형의 응대하는 말이 제2단(88구), 제4단(188구)을 이루고 있다. 종매의 말에 대해 처음에는 유순하고 짧게 응대를 하다가, 다시 반론을 펴며 말대꾸를 하자 본격적으로 긴 사설을 동원하여 다소 강경하게 응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의 이 가사의 절반에 육박하는 제4단의 설득 사설을, ‘보내는 회포의 말’이라 하여 종남형 스스로가 ‘송회사’라 명명하고 있다.

제3단에서 종매는 “허허 쉴스 종남형아/남의 정곡 모라고서/그런 말씀

3) 이 가사는 가사문학관에서 발행한 『규방가사 I』(2002)에 수록되어 있고, 임기중 편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채 해제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규방가사 I』에는 “친정에 돌아와서 봄철을 맞아 춘흥을 못내 겨워 노니다가 시가로 돌아와서 다시 시집살이를 하면서, 여자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여자로서 겪은 회포를 가사에 실어 보낸다는 뜻으로 읊은 작품이다.”(115쪽)라고 해제되어 있는데,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에서도 동일한 해제를 거의 그대로 轉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여자로서 겪은 회포를 가사에 실어 보낸” 것이 아니고, 시때 귀환을 死地에 나가는 것처럼 여기는 여동생에게 주는 從男兄의 설득과 당부다. 그 설득과 당부를 ‘송회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해제는 다음과 같은 정도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친정에 돌아와 좀 더 머물고 싶어 하며 여자의 신세를 한탄하는 從妹와, 그러한 종매를 다독이며 설득하는 從男兄 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된 가사로서, 從男兄의 최후진술이 ‘송회가’란 이름으로 종매에게 넘겨진 데서 전체의 표제도 ‘송회가’라 붙인 것으로 보인다.”

과이 마소/이애(내?)심회 그 안일세”<sup>4)</sup> 라고 반박을 하고, 시택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집은 시집이요 고향 그리운 심정은 어쩔 수가 없다고 반론을 편 뒤, “여즈 일신이 원수로다”라고 한탄을 한다. 이에 대해 중남형은 “너의 말이 그럴진대/그도 역시 당년하다”라고 수긍하는 듯 해 두고는, 곧바로 이어 “세상 물질 심각잔코/너즈 한탄 그리 마라”라고 말머리를 돌려 ‘송회사’라는 장광설을 편다.

장광설의 내용은 그대로 한 편의 계너가사다. 계너서에 나오는 교훈의 復唱에 가깝다. ‘보내는 회포’라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잔말 말고 정신 차려 시집살이나 잘하라는 엄포요 훈계다.<sup>5)</sup>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가사는 계너 가사의 한 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친정에 돌아와 고향산천을 대하고 친척 동류들을 만나는 감회가 제1단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계너가사의 전형에서는 멀어졌지만, 근친 말미에 시집 복귀를 꺼리는 여성들의 퇴영심리를 여실히 드러낸 후에 마치 確認射殺을 하듯이 그 부당함을 준절히 깨우치는 이 가사는 오히려 교훈성이 더 강화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맨 끄트머리에 시택 식구들이 읽을 것을 상정하여 겹사를 펴고 있는 것은, 규방가사의 제작과 소통에 관하여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sup>6)</sup> 또 그 직전에 일차독자인 종매를 향하여 시집살이 여가에 언문을 배워 답가를 지어 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 또한,<sup>7)</sup> 규방가사가 일방적인 교훈이거만

한 것이 아니라 소통과 조율을 위한 토론의 문학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시택의 부녀들이 이 문답체 가사를 보았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인식과 이해가 아울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우리 집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가 아무리 새아기를 다정하고 너그럽게 대한다 해도 시집은 여전히 시집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을 것이고, 둘째는 시택에 시집살이 범절을 이토록 철저히 가르치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효용과 기능의 중층성 때문에 장르 문법으로 볼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내용들이 한 편의 작품 속에 同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송회사>의 경우는 규방가사의 이러한 중층성이나 혼효성이 한층 두드러진 예라 할 수 있는 셈이다. 친정에 머물고 싶어하는 어린 신부의 내면 토로와, 귀의치는 친정이 아니고 시집임을 확인시키려는 오라버니의 집요한 설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서정과 교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규방가사 속에도 어린 신부의 시집살이 애로를 다각도로 조율하여, 친정에서나 시택에서 좀 더 편히 받을 뻔어 볼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 공간을 마련하는 기능이 숨어 있는 셈이다. 생활의 실제와 실감을 아예 봉쇄해 버리지 않고 이렇게 수시수처에 토로할 공간을 두고 있다는 것은, 딱딱한 계너서의 교훈을 감싸고 완충하면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혼이며 친영제가 굳어진 현실 속에서 대가족적인 질서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며 살아야 하는 어린 신부의 성공적인 시집 정착은 친정이나 시집 모두의 공동된 과제였을 것이다. 규방가사는 그 제작에서 소통까지 이러한 과제상황 속에서 구성원들 상호간의 소통과 조율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셈이다.

4) 괄호 안에 ?표를 곁들여 적은 것은 필자가 교정을 시도해 본 것이지만, 아직은 미심쩍은 상태다. 이하의 경우도 같다.

5) “이내 가스 일흠을랑/송회사라 흐느리라/보낼 송즈 회포 회즈/회포 잇난 노래로다”라고 규정을 해 두고 시작되는 사설이지만, 회포라 할 수 있는 정서적 내용은 전무하고 계너서에 준하는 관념적 교훈과 행동 준칙만 나열되어 있다. (위책, 120쪽 및 그 이하 내용).

6) “언어불통 만스오니/쇠택집 부너든지/이 글 귀경 하시거든/대방가이 교안으로/ 교정호심 천만니압”으로 끝난다. 단순히 종매만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시택쪽 사람들을 독자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7) “침선 골물 여가 바셔/언문이나 힘서 비화/애(래?)인거인 인편마다/셔스 왕복 즈로 호고/시답즈난 이 가스를/화답하기 바리노라”라고 당부를 하며 다독이고 있다.

아울러 〈복선화음가〉와 같은 변형계녀가사 또한 시집살이 어려움의 또 다른 국면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사는 여주인공의 치산 활동이 특별히 부각되어 있는 형태인데, 대개의 이본들이 여주인공과는 대척점에 놓이는 괴똥어미의 행적을 대비적으로 제시한 후에, 계녀혼을 두고 매듭을 짓고 있다. 괴똥어미가 부귀한 집에 시집와서 치산을 제대로 앓고 행실을 멋대로 하다가 꽤가망신에 이른 경우라면, 주인공은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서 분발 치산을 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킨 경우라 할 수 있다.<sup>8)</sup>

〈복선화음가〉 류의 경우는 계녀서에서부터 계녀가사 일반에 규정되어 있는 양반가 부녀의 치산 범주를 훨씬 벗어난 본격적인 생업활동 내지 상업활동까지를 여주인공의 행동반경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양반가의 관습과 체통에 비취 본다면 금해야 마땅한 일들이다.<sup>9)</sup>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당당하고도 자랑스럽게 술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말로 시댁 가문을 재건하는 실제적인 토대가 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다만 물질적 재부의 위력에 그 功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事舅姑 같은 婦德을 잘 닦은 결과 ‘福善’에 이르고 그렇지 못하여 ‘禍淫’의 결과를 맛보게 된 것이라는 억지추향식의 구도를 고집하고 있다. 〈복선화음가〉라는 표제 자체가 이러한 의도적인 구도의 가장 두드러진 표징인데, 이로 말미암아 이 작품은 그 실질과 포장 사이에 현격한 괴리를 초래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

관성적으로 남정네들이 글공부에 매달려 생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봉제사 접빈객을 위시하여 모든 체면치레는 그대로 유지하려 들었던 향촌사

족층의 며느리 노릇이란 보통의 고역이 아니었다.<sup>10)</sup> 이런 곤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복선화음가〉 주인공의 생업 투신 행위였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양반가 부녀들이라 할지라도 규방에만 안주할 수 없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주인공의 생업 활동으로 말미암아 致富에서 가문의 재건에까지 이른다는 서사구조는 현실태라기보다는 백일몽에 가까운 낭만적 환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제상황을 報告 형태로 진술한 기록도 많이 있는데, 巍巖 李柬(1677-1727)이 早死한 아내 윤씨의 행적을 기록한 〈亡室安人尹氏行狀〉과 경남 함양의 선비였던 徐璘淳(1827~1898)의 장편시 〈田家婦〉 〈詩家婦〉는 그 정황이 〈복선화음가〉와 상통하는 바가 많다. 이간의 아내 윤씨는 京師의 부유한 별열가 坡平尹氏의 따님으로 호서의 대표적인 산림학자였던 외암 이간에게 시집 와서 淸貧한 山林學者의 家風을 따라 克己와 자기 희생의 삶을 살다 간 인물로서 〈복선화음가〉 여주인공의 경우와 그 배경과 처지가 유사하다.<sup>11)</sup> 또 서인순의 시에는 ‘농사하는 집의 아낙’과 ‘글히는

10) 〈복선화음가〉에도 班家の 뿌리 깊은 因襲과 물정 모르는 글쟁이 남정네들로 말미암아 더욱 깊어지는 며느리의 고달픔이 체험적 실감으로 그려져 있는데, 굶주림으로 인한 頭痛氣를 느끼는 며느리와 한껏 여유를 부리는 남정네들의 대비가 인상적이다. 그 대목은 다음과 같은데, [A]는 부역의 困境을 그린 것이고 [B]는 이와 대조적인 사랑의 豪氣를 그린 것이다.

[A] 여간 쌀더 밥을 진들 부모 남편 진지하고/슈삼 노복 난화쥬니 저 먹을 것 전혀 업다/한 때 굴머 두 때 실시 치마끈을 즐나민들/글노 엇지 당할소냐 눈이 캄캄 하울적의 헛두통을 알노라니

[B] 사랑이서 무삼 호기 슈청 하님 급히 불러/손님 두 분 오스스니 술 사오고 점심해라/호령이 등등하니 시항을 아니 하면 사랑이 망신이요/시항을 하자 한들 두 쥬먹 불것스니/싱각다 할 일 업서 인두 가왜 전당쥬고/술 사오고 양식 팔아 손님 디집 하엿신들/그 무엇이 넉넉하여 지 요기르 하짓말가/잇홀 사흘 유한 손님 말유하기 무삼 일고/봉제접빈 지성인들 업단 바이 어이 하리/반깡기요 차려 노니 잔드러난 이너 마음/일언일도 한빈지사 이 모양이 한심하다

11) 〈복선화음가〉와 이 작품을 대비한 논의는 즐고,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치산관련 여성형상』(『고전문학연구』 31집, 2007. 6)을 참조할 수 있음.

8) 『초당문답가』의 〈치산〉 편에도 ‘선부귀 후빈천’과 ‘선빈천 후부귀’를 대비하여 치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복선화음가〉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 계녀서나 전형계녀가사의 경우 ‘근검 절약’을 부녀 치산의 범주로 한정해 두고 있다. 이는 향촌사족 남성들이 ‘안빈낙도’를 표방하며 생업을 위한 악착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과 표리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집의 아낙'을 대비하여 그들의 처지와 애로를 풀어내고 있는데, 남정네가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생업을 돌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비극적 정황이 펼쳐지는지를 '글하는 집 아낙'의 푸념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sup>12)</sup> 현실태란 이와 같이 節儉의 극점에서 枯死하듯이 죽어가거나, 안팎의 모든 노동을 떠안고 일 속에 치여 폭삭 늙고 마는 것이 예정된 길이었을 것이다. <복선화음가>란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 보려는 안간힘의 반영으로 보인다.<sup>13)</sup>

그리고 규방가사 가운데 또 다른 극단적인 시집살이 체험을 토로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늙은 남편을 수발해야 하는 경우나 청상과부가 된 경우가 그것이다. 남편에 대한 愛憎이나 운명에 대한 거부와 수락을 가늠해 보이는 이러한 가사들은, 우선 토로하는 당사자들에게 자기 내면을 추스르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사를 수용하는 자들 또한 자기들의 고달픈 시집살이를 이들과 견주어 보면서 일말의 위안을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규방가사의 분류를 형성하고 있는 보통의 계녀가사 이외에도

12) 담을 이웃하여 사는 田家婦와 詩家婦가 자기들의 신세 타령을 늘어놓는 내용의 장편한시로서, 각각 7언 40구와 잡언 40구로 되어 있다. 안팎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향촌사족층 부녀들의 곤경이 잘 그려져 있는데, 특히 田家婦를 부러워 하면서 田家婦에게 原情을 하는 詩家婦의 푸념이 白眉다. (줄고, 「농사하는 집 아낙과 글하는 집 아낙」,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집, 2005. 참조.)

13) <복선화음가>가 가문서사를 통반하며 장편화하여 가문소설과 유사하게 된 <愚山本복선화음가>가 최근에 소개된 바가 있고(윤주필, 「우산본 복선화음가에 대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제16차 학술발표대회, 이화여대, 2005. 2. 줄고, 「우산본 복선화음가의 가문서사 양상과 그 여성사적 함의」, 『고전문학과교육』 10집, 2005. 8), 제목에서부터 가문소설과 닮은꼴을 이루고 있는 규방가사 <이정양가록>이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강전섭, 「이정양가록에 대하여」, 배달말 16호, 1991. 박애경, 「장편가사 이정양가록에 나타난 사족 여성의 삶과 내면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집, 2003. 6). 전자는 낭만적인 환상을 극단까지 밀고 나간 형국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실제 체험에 바탕한 생애담의 성격이 크지만 가문소설적인 윤색이나 조율의 자취가 뚜렷해 보인다. 시집살이 감내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에 초점을 둔 가사들이라 할 수 있다.

시집살이를 과제상황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는 것은, 시집살이의 문제가 규방가사의 가장 근원적인 주제적 관심이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오늘날의 여성현실이나 여성의식에 비추어 본다면 터무니없는 語不成說로 비치지만, 당대의 여성들로서는 가장 어려운 과제를 이겨내는 힘겨운 씨름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3. 귀의처, 그 결국은 어디인가?

규방가사 가운데는 여자의 결국은 시집귀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또는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떳떳한 도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환기시키는 작품들이 있다. <덴동어미화전가>와 <노처녀가> 류 등속이 바로 그것인데, 이들 작품의 주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수용적 맥락에서의 주제적 관심이 맺히는 지점은 여자의 운명, 그 귀의처가 어디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덴동어미화전가>는 주인공 덴동어미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이 생생하게 형상화된 작품이어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이 작품을 처음 소개했던 김문기는 그 서민적 체험의 사실적인 재현을 높이 평가했고, 이후로도 이 점은 작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sup>14)</sup>

김종철은 작품의 배경을 역사적으로 구체화하여 그 내용이 허구가 아닌 사실의 기술일 가능성을 밝히고, 그렇다면 실제 이렇게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은 여인이 지니고 있던 신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넘치는 신명으로 판을 주도하여 우물하게 가라앉을 수도 있었을 화전놀이를 한 판

14)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의 축제로 이끈 그 근원적인 동력은 바로 달관이었음을 논한 것이다. 운명의 작란 앞에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운명의 얼굴을 이미 보아 알고 있는 자의 달관의 여유’가 판을 그렇게 고양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sup>15)</sup>

박혜숙은 그 술한 불행의 심연,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 덴동어미를 건져 올리고 지탱케 한 힘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그것은 바로 견고하고도 웅숭깊은 여성 連帶에 있음을 논하고 있다.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한 가부장제적 여건 속에 처한 봉건시대 여성들 상호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인간적인 紐帶와 상호 扶助가, 고난의 심연 속에 처한 한 여인을 일으켜 세우고 살아갈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덴동어미화전가>이기도 하다는 해석이다.<sup>16)</sup>

김용철은 이 작품이, 철저하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평범한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며 작품해석에 임하고 있다. 고난으로 점철된 덴동어미의 삶이 탁월하게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는 이 작품은, 상품화폐경제 형성기에 아무런 보호막이나 완충장치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민중적 삶의 한 전형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의 공감요인도 바로 이 점, 고난의 한 복판을 헤쳐 나가는 민중적 저력의 형상화에 있다는 것이다. 17세 청춘과부가 덴동어미의 회고담을 듣고 ‘황연개오’를 했다는 것도, 친정 마을 ‘담살이’로 귀착된 덴동어미의 改嫁 체험담이 도출해 낸 ‘운명극복의 意志’에 대한 공감적 決意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17)</sup>

15) 김종철, 『운명의 얼굴과 신명』, 『백영정병욱추모논문집』, 신구문화사, 1992.

16)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 14호, 2005.12.

17) “이 작품에서 팔자는 인생이 단순히 패배만도 승리만도 아닌 고난으로 점철된 불합리한 것이며 그것 자체가 바로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춘과부가 이 이후로 다시 마음을 바꿔 개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러한 인생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것을 이겨 나가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청춘과부의 상부에 대한 슬픔이 액자구조를 통해 덴동어미의 인생역정에서 겪은 경험과 만나는 지점이

김대행은 <덴동어미화전가>도 역시 동일한 화전가임을 확인하고, 화전가의 문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화전가는 화전놀이의 즐거움과 함께 슬픈 사연이 쌓을 이루어 나란히 제시되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즐거운 자리에서 실움을 환기하는 현상’과 동일한 것으로 ‘反面衝動’으로 부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덴동어미화전가>는 이러한 반면충동의 전형성이 극대화된 한 사례일 뿐이라는 것이다. 서사성에 초점을 둔 기존 논의들에서, 덴동어미의 술회담을 그 본질적 알맹이로 삼아 중요하게 다루고, 그 전후의 화전놀이에 관한 진술은 액자로서만 취급하는 경향이 현저했었는데, 이 논의는 화전가의 큰 틀 속에서 작품을 균형 있게 살피고, 화전가의 구조 속에 투영된 심리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통찰하고 있다.<sup>18)</sup>

이상의 논의들이 <덴동어미화전가>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들인데,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함의들을 잘 짚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改嫁談論’이라고 불리도 좋을 논쟁적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거나 가볍게 다루고 있다. 덴동어미의 3차에 걸친 개가 이야기, 그 파란만장한 人生流轉의 서사가 등장하는 맥락도 바로 이 改嫁問題 때문인데, 이 점은 이 작품의 제작 유통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성찰해 볼 문제인 것 같다.

왜 이런 이야기가 꽤 진지한 편집으로 보이는 『소백산대관록』이란 책자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것을 간직해 가며 돌려 읽었을 부녀들에게는 어떤 의미와 효용을 지닌 것일까 하는 문제다.

김용철이 면밀히 살핀 바와 같이 『소백산대관록』은 한시에도 소양이 있

며 이 작품이 형상해 낸 인생의 모습이다.”(김용철, 『덴동어미화전가연구1』,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278쪽.)

18) 김대행, 『덴동어미화전가와 팔자의 원형』, 박노준의 편, 『고전시가 읽어읽기』, 태학사, 2003.

는 여인에 의하여 편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19)</sup> 편집인이 곧바로 <덴동어 미화전기>의 작자일지, 그것을 필사만 하여 편집한 것인지는 가리기가 어렵지만, 덴동어미의 이 긴긴 술회담을 빠짐없이 기록하거나 필사해 둔 데에는 만만치 않은 목적의식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改嫁 挽留의 설득력이 이 작품의 제작과 소통을 매개한 것으로 보인다. 문면에 구조화되어 있는 그대로 덴동어미의 설득력은 매우 탁월하다. ‘운명의 얼굴을 본 자의 달관에서 일어나는 신명’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그의 설득과 지휘에 따라 부녀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화전관은 다시 신명나는 축제가 되며 마무리가 된다.

여기서 ‘운명의 얼굴을 본 자의 달관’이란 결국은 ‘팔자의 수락’인 셈인데, 덴동어미가 그렇게 흥겹게 떠들가는 화전놀이의 분위기를 일거에 좌초시킨 청상과부를 설득한 논리는 작품의 문면대로 ‘개가고생에 비하면 수절고생은 오히려 호강’이라는 말로서 집약이 된다. 기나긴 개가담은 이 명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논거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녀의 개가는 고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결과 또한 평생 부양이 필요한 병신 아들을 데리고 담살이하는 신세였다. 이러한 현재적 처지와 함께 그의 개가 만류 담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호재였을 것이다.

세 번에 걸친 개가를 세세히 피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개가를 긍정한 것으로 보거나,<sup>20)</sup> 고생 사설의 구체성을 근거로 규방가사적 규범에 대한 반발로 본 견해가 있으나,<sup>21)</sup> 이는 텍스트의 실상과 멀 뿐만

아니라 규방가사 제작 수용의 당대적 맥락과도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물론 조선조 사회에서 改嫁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받았고, 규방가사가 향촌사대부 가문의 문화적 관록과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세 번에 걸친 개가 과정과 개가살이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노라마처럼 드러내 보이는 이 작품은, 그 산출이며 유통-수용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모로 의아한 바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규방가사문화권의 요청에 따른 ‘규방가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해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텍스트의 실상이 어떠하며, 규방가사 문화권의 새로운 요청은 또 무엇이었는가를 살피는 지점에서부터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텍스트 실상으로 볼 때, 덴동어미의 어조는 시종일관 진지할 뿐만 아니라, 설득의 열정으로 충만하다. 타고난 팔자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 일생을 술회하면서 대목 대목에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술회의 끝에 주변 마을이나 이웃 고을의 허다한 개가 실패 사례들을 집성하여 구체적으로 揭示하기도 한다. 배치의 구도로 보거나 어조와 태도의 측면으로 보아 덴동어미의 말이 개가 만류의 담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동요하는 청상과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감복시킨 성공한 담론이기도 하다. 또 시집살이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부녀들 모두에게도 그 원망과 불평의 감정을 일시에 털어 버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화전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推動한 동력이 되기도 했다.

작자는 이 점에 주목하여 덴동어미의 이 긴긴 설득의 담론을 거의 録音하

19) 김용철, 위의 논문, 257쪽. 1번 주석 참조.

20) 신태수, 「화전가와 개가긍정문학의 대두」, 『영남어문학16집』, 1989.

21)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에서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런 작품은 사대부 부녀들의 규방가사를 본떠서 변형시키는 수법으로 기존의 관념에 대한 하층민의 반발을 나타냈다 하겠다. 살기 위해서 처절한 투쟁을 해야 하는 밑바닥 인생에서 보면, 규범과 안정 속에 머무르고 있는 규방가사는 화전놀이의 즐거움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집살이가 괴롭고 청춘과부가 외롭다는 푸념조차도 사치스럽기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화전가를 짓는다 해놓고, 모두들 즐기는 광경

을 서술하다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혀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농도 짙게 내놓아 이미 설정한 분위기를 파괴했다.”(3권 345쪽. 84년, 86 4판)

양반 부녀들의 규방가사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을 담은 것으로 본 견해인데, 이것은 ‘가사 장르의 이행기적 변모’라는 문학사적 구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덴동어미를 곧바로 이 가사의 작자로 가정해 버린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김용철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의 작자는 <소백산디관록언희가>를 지은 여인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덴동어미의 일생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자에 의해서 재구성된 의미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 수록한 것 같이 옮기고, 그 전후에 덴동어미의 차림, 행태, 신명 등등까지를 묘사하여 화전판의 群鷄一鶴처럼 부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수용되는 맥락 또한 작자의 이러한 저작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팔자를 수락하며 고난을 감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집살이 부녀들에게 ‘시집귀신이 되는 것이 가장 떳떳한 일’이라는 뚜렷한 확신을 심어주는 이 작품은, 덴동어미 인생유전의 간접체험과 더불어 그들의 내면에 적지 않은 위안과 격려의 기능을 하며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노처녀가〉 류 또한 규방가사문학권을 형성하고 있는 향촌사족층의 가정 내에서는 〈덴동어미화전가〉와 비슷한 맥락에서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처녀가〉 류는 〈노처녀가1〉, 〈노처녀가2〉라는 가사작품과 이들과 어느 정도의 상호텍스트성이 엿보이는 소설, 〈쪽독각시전〉과 최근에 보고된 〈노처자전이라〉(박순호 소장 『필사본고소설전집』) 등이 있는데,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異論이 분분하다.<sup>22)</sup> 여기서는 이러한 창작이나 제작의도와 관련된 논의는 생략하고, 이 작품들이 규방문화권에서 일반 규방가사와 함께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것들의 소통과 수용을 매개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들 작품은 모두 노처녀의 困境과 결혼에 대한 갈망과 의지를 다루고

22) 최원식에 의해 본격적으로 정식화된 ‘가사의 소설화’ 구도를 따라, 〈노처녀가1〉에서 〈노처녀가2〉가 파생되고 이것이 다시 소설 〈쪽독각시전〉으로 발전했다는 도식이 한 동안 정설처럼 굳어져 있었는데, 최근의 본격적 논의들에서 이러한 도식은 거듭 부정되고 있다. (박일용, 「삼설기에 나타난 울문적 문체와 그 의미」, 『장르교섭과 고전시가』, 월인, 1999./박일용, 「노처녀 1의 담론형태와 그 시학적 의미」, 『조선 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고순희, 「노처녀가1 연구」, 『한국시가연구』 14집, 한국시가학회, 2003./성무경, 「노처녀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조선 후기 시가 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서, 2004.) 이들은 공통적으로 서로 다른 작가가 서로 다른 노처녀의 사연을 담아 창작한 작품들로 보고 있는데, 성무경은 특히 〈노처녀가2〉가 노처녀 담론이 時事的 초점이 되었던 18세기 당대에서 멀지 않은 선형 작품이고, 〈노처녀가1〉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잡가문학권에서 산출되고 다듬어진 작품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있고, 소설의 경우는 결혼을 실현시키기 위한 주인공 노처녀의 집념의 행동, 시집살이 감내를 위한 지극정성의 노력, 그 찬란한 보답 등을 아울러 그리고 있다.

우선 40대나 50줄에 들어선 노처녀의 곤경을 절절히 읊어내는 노처녀의 自歎辭說은, 모든 규방가사들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시집살이 艱苦와 대응을 이루고 있다. 체험으로나 규방가사 수용을 통하여 시집살이 고생에 주눅이 들어 있을 부녀들에게 이 둘 사이의 대비는, ‘시집 고생이 노처녀의 곤경보다는 그래도 낫다’ 라는 귀결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신으로 설정된 노처녀가 결혼을 하자마자 ‘먹은 귀 밝아지고 병신 팔을 능히 쓴다’와 같은 기적적인 치유 대목에 이르게 되면, 시집살이의 자잘한 고생들이 일순간에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노처녀가1〉에서 자신을 처녀로 늙히는 부모를 향하여 쏟아내는 막말에 가까운 비판적 언사나, 〈노처녀가2〉를 비롯한 여타의 소설작품에서 결말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급되는 골계적 興味素들은 이들 작품에 접속된 수용자들을 붙잡아 두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렇게 웃으며 따라가는 동안 노처녀의 곤경과 그 구제의 문제가 어느덧 절박해지고, 자신의 시집살이 곤경은 상대화되는 경험이 실현되었을 것이다.

또 이들이 결혼을 이루기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의 절박함이나, 결혼 후의 참담한 시대 형편, 또 그것을 극복해 내기 위한 지극정성 등도 또한 反面教師로서 이들 작품의 수용자에게 작용했을 것이다. 〈복선화음가〉의 수용에서와 같이 이들 〈노처녀가〉 류의 수용 또한, 시집살이를 넘는 극복의 의지와 노력을 가상적으로 실험케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인순의 작품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로또 당첨보다도 더 무망한 과거공부를 빙자하여 생업 활동엔 손을 묶고 앉아 있는 남정네들로 인하여 향촌사족층 부녀의 시집살이가 한층 어려워진 상황이, 이들 작품이 산출 수용되는 시대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赤貧의 상황이나 오십 줄에 들어서는 노처녀의 상황과 같은

極限的인 상황이 설정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향촌사족층 가정의 출구도 없는 막다른 현실과 상호 조응하는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텐동어미화전가>와 <노처녀가> 류의 작품은 그 설정된 배경이나 인물형, 사태며 정황, 언어적 자질 등에서 향촌사족층 가문의 분위기, 곧 규방가사문화권 문학의 正體性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것들은 향촌사족층 가문이 당면한 현실적 과제나 규방가사문화권의 문학적 수요를 따라, 가상적으로 새로이 창출되었거나 도시의 시정공간이나 좀더 낮은 계층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텐동어미화전가>가 그 개가 만류 담론으로서의 효용성 때문에 텐동어미의 독특한 개인사와 그 입담을 소재로 끌어들이어 창작한 것이라면, <노처녀가> 류는 그들의 고달픈 시집살이에 의미와 가치를 실어주는 기능 때문에 도성의 시정문화권으로부터 차입해 들인 것으로 보인다.<sup>23)</sup>

어쨌든 이들 작품이 규방가사문화권에 수용된 이유는 ‘귀의처가 어디인가?’를 새롭게 환기시키고 인식시키면서, 한결 고달파져 가는 그들의 시집살이를 새롭게 추슬러 감내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기능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집 고생이 개가 고생, 개가 망신보다는 그래도 낫고’, ‘시집살이 애로가 노처녀의 곤경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메시지를 형상적으로 탁월하게

23) <노처녀가>는 <1>과 <2>를 막론하고 회화적인 어법이나 웃음 유발의 장치들을 곳곳에 두어 기본적으로 골계미의 범주로 파악되는 작품들이다. 이 점은 소설의 형태를 띤 파생작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노처녀가>류는 곧보름 제제로 한 “바둑바둑 엮은 놈아 제발 비자~” 따위의 사실시조나 잡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따위 골계미적 사실시조, <우부가>나 <옹부가>와 같이 장면을 극대화하면서 희극적 과정을 동반하고 있는 가사 등과 서로 상통하는 부류라고 볼 수가 있다. 익명성에 기반한 풍자와 웃기 위한 웃음이 범람하는 시정의 분위기에서 창출되고 다듬어져 나간 대중문학의 하나인 셈이다. 그것이 지방으로 전파되어 필사본들이 만들어져 규방가사문화권 여성들 사이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혼인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양반들의 체면과 허위의식을 풍자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다기보다는, 시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나 고달픈 시집살이에 대한 위안의 의미를 띠고 수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제시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이, 이 작품들의 유통과 전승을 매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숨 돌리기, 어디서 오는가?

규방가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口演 享受되는 작품은 탄식가류라고 한다. 제목 자체가 탄식을 표방한 작품들도 무수히 많지만, 그 밖의 대부분의 自傳的인 술회담들도 탄식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고, 이것들이 흔히 탄식가류 규방가사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탄식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이는 화전가류나 계녀가류에도 탄식이 범람하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바, 이에 관해서는 양태순이 자세히 살핀 바가 있다.<sup>24)</sup>

이러한 탄식가들은 주로 가부장제의 모순을 비판하는 저항문학으로 해석되거나 오늘날의 여성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판으로 활용되었다.<sup>25)</sup> 그러나 이러한 탄식가류를 포함하는 남녀 문답의 가사 등 규방가사

24) 양태순, 『규방가사 여성성으로서의 한탄에 대하여』, 김병국의 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그러나 양태순은 규방가사의 지배적 정서로서 ‘한탄’을 다루면서도 이 한탄을 ‘여성성’의 징표로서 거론할 뿐 그 가치평가는 유보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 규방가사의 집성과 초창기 연구를 주도한 권영철이 ‘반항문학론’을 편 이래로 한국 여성문학이나 한국고전여성문학회에서 규방가사를 다룰 때 이런 視角이 많이 표출되었다. 권영철은 신변탄식류 규방가사가 ‘女卑’라는 ‘位’의 제약이 가져온 ‘인종강요의 삶’이 그 ‘相’이었음을 논하고, “이러한 ‘위’와 ‘상’에서 탈출 극복 부정 등을 志向하여 反抗精神을 함양하였고, 다시 이를 止揚하여 마침내 신변탄식류의 가사를 창작하고 전사 향유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승화시켰던 것이다. 다만 이 반항문학인 신변탄식류의 규방가사가 강경하기는 하지만 철저한 반항문학이 될 수 없었고, 그녀들은 그녀들이 지니는 位相을 반숙명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어느 정도 긍정하면서 옅은 반항문학이었다는 것이 玉의 티라고 할 수 있겠다.”(『규방가사, 신변탄식류』, 효성여대출판부, 1985, 8-12쪽.)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반을 당대 여성들의 어문생활사적 관점에서 좀 더 차분하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어문생활이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인데, 여기에는 젠더적인 권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듣기만 했던 시대가 있었고, 듣고 말하기가 동시에 허용된 단계, 듣고 말하고 또 국문으로 읽기까지가 가능했던 시대를 거쳐, 듣고 말하고 국문으로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해진 단계를 거쳐, 공식문자인 한문을 읽고 쓰는 것까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단계에 진입하는 경우까지도 생겨나기에 이른 것이 여성 어문생활사의 실상이라는 것이다.<sup>26)</sup> 따라서 규방가사를 읽을 수 있는 단계, 나아가 규방가사를 쓸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의 진전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허용되는 자율의 폭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부 규방가사에서 상당히 높은 한문 교양의 자취가 확인되는 것은 이것이 양반가 부녀들만의 특권의 한 징표이기도 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양 사설이 문맥적 필연성을 이탈하면서까지 術學的으로, 또 顯示的으로 확장되어 드러난다는 사실은 여성의 어문생활사적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 둘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규방가사의 향유 자체가 문화적 관록의 한 징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양반가 부녀들만이 가능했던 ‘숨 돌리기’였다고 볼 수 있다.<sup>27)</sup> 여기서는 이런 어문생활사적 시각에서, 전통시대 여성들의 간고한

삶의 조건 속에서 규방가사가 어떻게 그들의 시집살이에 ‘숨 돌리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문답이나 토론을 규방가사 속에 수렴해 들이고, 그 가사가 친정 집이나 시댁, 동류들 사이에서 轉寫 回覽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간고한 부녀들의 사정이나 心懷가 소통이 되면서 숨 돌릴 여유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송회가>의 경우도, 친정에 근친을 왔다 돌아가는 종매와 종남형 사이의 문답을 통해 어린 신부의 정황이나 심경이 친가와 시가 양쪽에 이해되고 소통되는 방식의 일단을 확인했거니와, 출가했던 여인들이 근친 온 말미에 친척집을 찾거나 고향의 승경을 돌아보는 일은 흔히 있었던 것 같다.

<적벽가>와 <답적벽가><sup>28)</sup>의 경우도 근친을 와서 합류한 하회 마을 류씨 딸들의 船遊를 둘러싼 남녀 사이의 문답과 선유과정의 흥취, 남녀의 지존심 대결을 다루고 있는데, 기어이 선유 허락을 쟁취하는 과정(<적벽가>), 허울 뿐인 남자들의 글공부를 痛打하는 대목(<답적벽가>) 등은 류씨 딸들의 드센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sup>29)</sup> 이 경우는 선유를 주선하는 재력이

“실로 규중에서 가사가 애독되는 연배도 부녀들의 노년기에 속하며 마을 노구분들이 모여 闕讀하는 자리에 젊은 새댁들도 끼여서 듣다가 어른들이 미루어 읽으라 하면 읽어 드리는 정도”(위책 162쪽).

28) 가사문학관, 『규방가사 I』, 2002, 61번, 62번 작품.

29)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원본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벽가>가 남자들의 입장에서 여자들의 선유를 분수에 넘치는 일로 여겨 선유를 허락 주선해 주고도 계속 고깝게 보거나 얽잡아 보는 시각에서의 기술이라면, <답적벽가>는 이에 대한 여자들의 반박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방가사 I』(가사문학관)의 61번 <적벽가> 해제는 이 작품을 여자들이 자기들의 선유 흥취를 자랑하고 있는 작품으로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있다.

“소동파의 적벽놀이를 본받아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의 부녀자들이 하회마을을 감싸도는 낙동강에 뱃놀이를 하면서 지은 가사이다. …풍류가 담긴 흥겨운 작품이다.”(위책, 390쪽).

26)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 박사논문, 2004.

27) 이에 관하여는 이동영의 현장 조사 결과와 체험적 증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규방가사의 전이에 대하여』, 『가사문학연구』, 부산대출판부, 2002). 그는 규방가사의 전이가 선택에 의해서보다는 중년 넘어 시어머니가 될 즈음에 차람-전사-교환의 방식으로 이쪽 저쪽으로 전이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그 향유 또한 노년기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시집갈 때 전사해 준다는가, 신부가 지참해 온 가사를 돌려가며 전사했다든가, 의롱속 가사의 양으로 신부의 교양이나 가문을 평가한다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견해”(위책 162쪽).

나 그 규모, 드센 어투 등으로 보아 제법 나이가 든 부녀들이 앞장을 서서 일을 꾸미고, 〈답적벽가〉도 지은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은 앞으로 더 이상은 선유를 허락하지 않을 방침으로 〈적벽가〉를 지어 여자들의 선유를 조롱하고 나무리는 뜻을 부친 것일 터인데, 여자들은 도리어 〈답적벽가〉를 지어 자기들의 풍류가 고인들의 풍류에 비겨도 손색이 없고 만일 자기들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 따위로 허송세월을 하며 훌륭한 조상들을 욕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허락을 얻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임에도 이렇게 호기를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규방가사를 통해 마련되는 여유 공간이었던 셈이다.

그 동안 많이 다루어졌던 〈조화전가〉와 〈반조화전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사들은 18세기 중엽으로 연대가 분명히 밝혀져 있어 규방가사의 초창기 형태로서도 주목되는 작품들인데, 여성들의 화전놀이(화전놀이)에 대한 남성 측의 비판적 조롱과 여성 측의 반박이 맞서면서 남녀의 본분이며 역할에 대한 상호이해나 조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매우 흥미롭게 드러내 주고 있는 자료다.<sup>30)</sup> 〈조화전가〉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겉으로는 큰소리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쁨과 가루를 조달할 수 없어 화전놀이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남자들의 곤경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대장부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화전놀이 판을 여자들이 버젓이 먼저 벌이는 것에 대한 뒤틀린 심사가 내비치고 있다. 그러면서 여자들의 역할과 도리에 관하여 설교를 하면서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반조화전가〉에서는

작품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했거나 전혀 다른 작품을 해제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면밀한 원본 대조를 거친 재검토를 통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 이들 가사는 1회전의 형태로 주고받은 후에, 남성 측에서 〈嘲花煎歌〉의 내용을 수정을 하자 〈反嘲花煎歌〉의 작자인 안동원씨도 작품을 수정했다 하며, 〈조화전가〉의 작자는 만년에 〈상심화전가〉를 지어 젊은날의 稚氣를 반성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박경주, 「反/嘲 花煎歌 계열 가사」,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과 이동연, 「화전가로서의 반조화전가」(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를 참조할 수 있다.

모처럼 날을 잡아 노는 여자들의 화전놀이를 비판하는 남성들의 속 좁음을 나무라고, 사대부의 賞自然에 손색이 없는 자신들의 觀物 興趣를 서술한 후에, 남성들로 하여금 흥내만 내는 학문 태도를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조화전가〉의 작자가 후일 〈상심화전가〉에서 토로한 바와 같이 “졸 주고 차 받기” 형국이 되고 말았다. 어쨌든 여자들이 고달픈 삶에서 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규방가사를 통해 마련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는, 규방가사의 표현 기능과 정리 기능을 잘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내면 조율의 효과로 인하여, 숨 돌리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집에서 부모나 형제를 그리워하는 마음, 근친 가서 고향산천을 돌아보는 감회와 견문 내용, 관혼상제의 여러 국면에서 느끼는 회포, 특별한 경험이나 의외의 일을 겪으며 느낀 감동이나 충격 등등, 규방가사는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그 담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정리와 조율이 이루어졌다. 한두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심중소회〉는 시아버지의 영전에 생전의 일들을 회고하여 아된다고 하며 지은 장편가사인데,<sup>31)</sup> 청상과부 며느리를 위한 시아버지의 자상한 배려와 연민의 정을 회고한 대목이 매우 인상적이다.

오회라 아부님은 이 몸 위로 식이시랴/ 가진 소설 구히 와서 이것 보고 저것 바라/ 상육 척스 구히 주며 이것 던져 위안하라/ 각집 쫓내 불너다가 갖치 웃고 노라 바라/ 기화요초 꼬자 두고 이것 보고 우지 마라/ 속이 타고 스리거든 년초나마 벗슴어라

31) 가사문학관, 『규방가사 I』, 2002, 32번 작품. 해제에 친정아버지의 죽음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 시아버지의 죽음임이 분명하다. 임종을 보지 못하고 보내 드린 것에 대한 해명을 곁하여 아된 것으로 보이는데, 영전에서 곡을 하면서 사죄했던 사실을 골격으로 후일에 살을 붙이고 윤색을 한 것 같다.

이러한 배려가 청상과부 젊은 며느리로 하여금 시집살이를 이겨 넘게 한 실제적 원동력의 하나였을 것이고, 그러기에 생전의 다정하던 그 음성이, 이제는 가고 없는 그 분의 영전에서 생생하게 재생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깊은 紐帶感이 “윤식아을 성취시켜 저의 니외 암셔우고/ 습디분 선영지하 누디시전 맛긴 후난/ 아바님전 짜르리라”하고 앞날을 헤쳐 갈 목표와 다짐을 또렷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심중소회’를 가사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이 여인은 사대와 상황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조율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노인회심곡〉은 김씨부인이 70세 생일을 당하여 지난날을 회상하며 지은 가사인데, 신행 전야 착잡한 감정의 추이를 생생하게 재현해 낸 대목이 압권이다.

(…계녀사…) 자식 만흔 네 어미는 항쟁 녀노(염려?) 무궁이라/지척 지지 결사지의 말성이나 잇게 되면/ 우피지면 필지로다 이런 말삼 듣자 오니/두통이 나는지라 어머님 그만 하소/명모 말삼 잘 드렸소 머리가 무거워요/조목조목 만흔 조목 엇지 다 행하릿가/쥬는대로 먹고살고 되는데로 행하리다/이러케 답변 하니 만방이 박장대소/웃음보가 터졌도다 어머님 화가 나서/버릇 업는 저 애 보라 남정 녀시 화생이라/또흔 모두 웃는지라 우리 언니 류씨부인/암전하신 인물이요 인자흔 마음으로/어머님 거(격?)정할 것 업나니라/머리 조흔 우리 아귀 남의 밥 먹게 되면/자연죽 짜라지고/똥도 점점 들 거시오/아직은 나이 어려 장난지심 썬이 건만/차차로 지가 들면 명망이 이스리다/이목구비 자시 보면 다복한인 생이라/ 부귀복록 직히리다 이러케 말을 하니/젓혀 안자 듯는 내가 철 업는 마음이나/형신도 암전하고 인사도 홀통함을/심중으로 탄복하고 우리 언니 최고로군/임사 덕형 구비할 제 태님 태사 못지 안네/나의 편을 드러쥬니 고맙기도 그지업네/어린 질녀 집어 안고 어엿부다 우리 규야/ 못난 고모 담지 말고 너의 엄마 달마 다오/정말 진정 부탁이야 이러그러 지나다가/바든 날이 신속하야 우귀족일 도엿구나<sup>32)</sup>

철없는 딸 걱정애 자꾸만 잔소리가 길어지는 어머니, 그러잖아도 부담감에 머리가 아파오는 소녀, 그 파국적 상황에서의 모녀간 불멘 대화, 이러한 어긋장이 빚어내는 웃음, 이것을 중재하는 울케의 덕담, 援軍을 만난 듯 기뻐하며 어린 조카딸을 담뱃 끌어안는 소녀, 못난 고모 님지 말고 너의 엄마 님으라는 말로 이루어진 大團圓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듯이 생동하는 현장감을 준다. 탁월한 재현력이요 형상화 능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리하는 동안 작자 스스로 큰 기쁨을 얻었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가사를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신행을 앞둔 어떤 모녀, 어쩌면 자신의 며느리나 손녀에게 신선한 해방감을 안겨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5. 결어

이상으로 규방가사의 작품세계를 그 주제적 관심의 측면에서 개괄해 보았다. 근대주의나 여성주의 등 현재의 학문적 관심이나 과제의 관점에서 살핀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전통 시대 향촌사족층 부녀들의 과제상황을 그대로 追認하고 追隨해 보고자 노력했다. 소박하게나마 어문생활사의 관점에서 살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일견 낡은 유습의 창고처럼 보이는 규방가사가, 중세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향촌사족층 부녀들의 삶을 지탱하고 추동케 하는 도구요 자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부장제라는 제도의 틀, 향촌사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 早婚의 풍습, 어린 여성이 혼인과 더불어 곧바로 시가에 귀속되어 살아야하는 親迎制 등 온갖 악조건 속에서 그들은 며느리가 되고 어머니

32) 가사문학관, 『규방가사 I』, 2002, 21번 작품.

가 되어 살아야만 했다. 다른 길이 없었고 歸依處는 오직 시집이었다. 그리하여 시집살이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그 고비 고비에 서 귀의처를 재확인 재다짐하고, 또 그 숨 막히는 현실 속에서 숨 돌릴 여유를 찾아 본 것이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였다.

21세기 가족의 형태나 가정 문화는 규방가사의 시대와 판연히 달라졌다. 그러나 20세기 초 자유연애의 계몽적 열정으로 그런 家庭像이 꼭 이상적인 것만도 아님이 한 세기의 실험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핵가족이 되어 인간은 얼마나 더 진보하고 성숙하고 행복해졌는가? 친정 중심으로의 경사가 과연 궁극적인 해결책인가? 무자녀 가정이나 독신주의가 대안일 수 있는가? 어느 것도 자명하지 않고 보편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이 되지를 못한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모두가 그렇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의 암중 모색이 있을 뿐이요,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의 끊임없는 조율과 감싸 안음이 있을 뿐이다.

출산과 육아 교육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오히려 그것이 문명 발달에 의해 더욱 지체되고 연장되어 가고 있는 현실 : 그리하여 육아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부모나 친정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규방가사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적인 문제로 이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규방가사에서 자기의 내면을 조율하고 관계를 성찰하고 자살한 일상을 배려하며 삶을 추슬러 나갔던 지혜를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규방가사의 계승방안에 관하여 한 마디만 첨언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가사 일반의 현대적 계승과 재창조에 관하여는 많은 이론적 실천적인 모색들이 있었다. 규방가사의 경우라 해서 별도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현대시조가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를 잡았듯이 가사 또한 다양한 모색의 과정을 통하여 언젠가는 양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르적 재현이나 재창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사문학 유산을 현대 문화의 여러 콘텐츠 속에 제대로 융해시켜 내고,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려면 가사의 진술방식이며 표현 특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가사문학 유산 속의 정체 나는 대목들을 가려 뽑아 콘텐츠의 제작에 활용하거나 변용해 보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 가사적인 발상, 진술방식, 표현특성 등에 관한 김학성의 일련의 논의는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탐구라 할 수 있고, 33) 史劇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제는 고전의 표현을 세심히 참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sup>34)</sup> 또한 이러한 탐색과 훈련의 필요성을 새롭게 일깨워 준다.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가장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포어나 비디오 클립을 만들거나 광고 문안 같은 것을 구안해 보면서 가사의 활용 방안을 실제로 실험해 보는 일일 것이다. 언제 어느 대목에 어떤 형태의 가사가 활용 가능할 것인지, 혹은 어느 정황 어떤 맥락에서 가사적인 발상이나 표현법이 요청되는지를 가능해 보는 훈련을 해 보는 것도 구체적인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 김학성의 최근 논의들에서 집중적으로 탐구된 바 있다. (『가사의 정체성과 담론 특성』, 『한국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가사의 장르적 특성과 현대사회의 존재의의』, 『고시가연구』, 21집, 2008. 2. 『가사양식의 전통 유형과 계승 방향』, 『제9회 전국가사문학계 학술대회 발표요지집』, 2008. 10.)

34) 최근 『바람의 화원』 같은 드라마를 만드는 데, 19세기 여항의 말투를 복원하기 위해 당시에 유행했던 대화장편 가문소설의 어투며 어법, 어미 처리 등을 다각도로 참조했다고 한다. 대화장편 전공자와 드라마 제작진의 협력이 요청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가사문학관, 『규방가사 I』, 2002.
- 강전섭, 『이정양가록에 대하여』, 배달말 16호, 1991.
- 고순희, 「노처녀가1 연구」, 『한국시가연구』 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 길진숙, 「여성으로 말하기」, 박노준외 편, 『고전시가 읽어읽기』, 태학사, 2003.
- 김대행, 「텐동어미화전가와 팔자의 원형」, 박노준외 편, 『고전시가 읽어읽기』, 태학사, 2003.
-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 김미옥, 「은촌 조애영의 산촌향가 연구」, 한국여성문학회 12차 정기연구발표회 논문요지, 숙명여대, 2005. 3.26.
- 김석희, 「농사하는 집 아낙과 글하는 집 아낙」,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집, 2005.
- 김석희, 「우산본 복선화음가의 가문서사 양상과 그 여성사적 함의」, 『고전문학연구』 10집, 2005. 8.
-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치산관련 여성형상」, 『고전문학연구』 31집, 2007. 6.
- 김성배외 편저, 『주해 가사문학전집』, 집문당, 1961. 1981중판.
- 김용철, 「텐동어미화전가연구1」,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 김종철, 「운명의 얼굴과 신명」, 『백영정병욱추모논문집』, 신구문화사, 1992.
- 김학성, 「가사의 정체성과 담론 특성」, 『한국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 김학성, 「가사의 장르적 특성과 현대사회의 존재의의」, 『고시가연구』, 21집, 2008. 2.
- 김학성, 「가사양식의 전통 유형과 계승방향」, 『제9회 전국가사문학제 학술대회 발표요지집』, 2008. 10.
- 나정순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 박애경, 「장편가사 이정양가록에 나타난 사족 여성의 삶과 내면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집, 2003. 6.
- 박일용, 「노처녀 1의 담론형태와 그 시학적 의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 박일용, 「삼설기에 나타난 율문적 문체와 그 의미」, 『장르교섭과 고전시가』, 월인, 1999.
- 박혜숙, 「텐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 14호, 2005. 12.
- 백순철, 「문답형 규방가사 창작환경의 두 층위」, 정재호 편,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 서영숙, 「한국여성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성무경, 「노처녀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서, 2004.
- 신태수, 「화전가와 개가정문학의 대두」, 『영남어문학』 14집, 1988.
- 양태순, 「규방가사 여성성으로서의 한탄에 대하여」, 김병국외 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 윤주필, 「우산본 복선화음가에 대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제16차 학술발표대회, 이화여대, 2005. 2.
- 이가원, 「꼭독각씨 실기」, 『국어국문학』 14집, 1955.
-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 박사논문, 2004.
- 이동영, 「규방가사의 전이에 대하여」, 『가사문학연구』, 부산대출판부, 2002.
- 이재수, 『내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76.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연구』, 박이정, 1999.
- 임기중 편,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84. 1986 4판.
-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과정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비평』, 18-4호, 1977.

〈투고일 : 2009. 12. 31. 심사일 : 2009. 1. 16. 심사완료일 : 2009. 2. 11.〉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Gyubanggasa in view of its Ultimate Concern

Kim, Seok-hoi

This paper is a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gyubanggasa in view of its ultimate concern. Gyubanggasa is the products of rural gentry's economic situations and social positions of premodern society. The women of rural gentry generally had to marry in their early teenage, almost about 12-16 years age. They also had to live with their parents-in-law and their children, grandparents-in-law and their children. They had to serve this large family. To make worse, rural gentry's economic situations and social positions became worse and worse. Therefore the life of the women of rural gentry was extremely hard. Gyubanggasa is the discussion of their difficult task in their marriage life, and also is the decision of carrying out their task, and also is the communication-and-pause of their inner self.

**Key words** : Gyubanggasa(閨房歌詞). rural gentry. the discussion of their difficult task in their marriage life. the decision of carrying out their task. the communication-and-pause of their inner self.